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루카 6:45)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느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3/ 2(일) 연중 제 8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 성수예식과 3월 축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 ▶ 3/ 4(화) 연중 제 8 주간 화요일 미사 (본당 20:00)
- ▶ 3/ 5(수) 재의 수요일 (본당 19:30)
- ▶ 3/ 6(목) 연중 제 8 주간 목요일 미사 (본당 19:00)
- ▶ 3/ 7(금) 십자가의 길 – 사목회 (본당 19:30)
- ▶ 3/ 9(일) 사순 제 1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3/5(수) 재의 수요일(19:30 미사) 안내

- 성지 가지 회수: 집에 보관하고 계신 성지가지 회수합니다.
복도 테이블에 있는 바구니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십자가의 길 안내(매주 금요일 19:30)

- 3/7 사목회 ▪ 3/14 해설, 독서단 ▪ 3/21 울뜨레아
- 3/28 꾸리아/바느기기도회 ▪ 4/4 성모회/성가대
- 4/11 주일학교 자모회/복사단/자모회 ▪ 4/18 구역장

※ 각 단체별 봉사자 4명은 계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제 단체 및 각 구역 장점 소개

분량은 약 3~5분이내. 핸드폰으로 찍으실때는 반드시 가로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단체 및 구역 소개와 장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총무 김성수 베드로 형제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과 신심단체, 성모회, 성가대, 성물방, 전례부, 주일학교, 복사단, 전례 해설단, 사목회 등). 완성된 파일은 전례분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회의 3/2(일) 미사 후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은빛 모임 3/2(일) 오늘 미사 후 친교 식사 후 친교실

◎ Day Light Saving

다음주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빨라집니다.
1시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소식

◎울뜨레아

3/6(목) 미사 후 친교실에서 본당 울뜨레아가 있습니다.

◎꾸리아

3/9(일) 다음 주 미사 후 꾸리아 회합이 있습니다.

공소 소식

◎ 성지가지 수거 3/2(일) 미사까지

◎3월 공소 축일자 3/30 김재근 조시모

구역모임 (소식)

친교 식사

3/ 2: 5 구역(배추 된장국 \$5/\$3)
3/ 9: 7 구역 3/16: 1 구역 3/23: 2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5 명)			
주일현금	\$1530	교무금	\$40
감사현금	\$0	성전건립	\$430

※ 감사합니다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 성전건립기금

◎3월 축일자 명단 (11 명)

- 3/ 1 알비노(황창환)
- 3/ 7 테오필로(이정길)
- 3/12 세라피나(임선녀)
- 3/19 요셉(정시안, 조용구, 조운형, 이인규, 임종선)
- 3/22 레아(홍준희)
- 3/25 그라시아(김경희)
- 3/31 벤자민(이강현)

2025 희년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배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사순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 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이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사십 일 동안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참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 사십 일을 걸었다(1열왕 19,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2 참조). 이처럼 ‘사십’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 금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136 조 참조).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게 해야 한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는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3/2	이은영 힐데가르트	송찬 아론, 이지민 이사벨라 유서진 다니엘,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강지원 요안나 2 독서: 임연신 비아	신낙홍 마리아 권희진 요안나
3/9	박규혜 카타리나	최아현 베로니카,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권희진 요안나 임연신 비아
3/16	권희진 요안나	이준서 사도요한,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김성수 베드로 김지현 아네스

다 배우고 나면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음을 알게될까요?

김동환 마티아 신부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겸 발달장애인 담당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졸업하면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월이 너무 오래 되었네요. 성당에서 배운 것도 참 많은데...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산수를 하고, 사회와 자연을 알고 음악과 미술, 체육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른말, 바른생활, 공중도덕과 예절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친구와 어울릴 줄 알게 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과 취미와 오락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네요.

나의 어리석음도 발견하게 되고, 부족함과 모자람을 감추고 싶어 하고... 내 실수와 잘못은 잘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타인의 잘못은 잘 알게 되고, 이런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 말이 내 안에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곤 합니다. (배운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내 멋대로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즉 오류가 오류를 낳고 그 오류가 또 다른 오류들을 만들어냅니다. 점점 내 눈이 어두워 지지요. 마치 영적으로 눈먼 사람처럼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을 동지로 만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아님을 내세우게 되지요.(복음에서 바리사이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이신 예수님을 부정하지요.) 왜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오류를 오류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지요. 오류들을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다 배우고 나면 오류들을 고치는 것을 머뭇거리는 걸까요? 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다죠 “나이가 듦 사람들은 즉 다 배운 사람들은 새롭게 바뀌기가 어려워서 사회가 발전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이 든 사람(다 배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성당에서는 자주 듣는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둘을 내려놓고 떠났다. 베드로 장모가 침대에서 일어나 시중들기 시작했다. 아무구스티노는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메온과 한나는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St. Peter Yu Roman Catholic Church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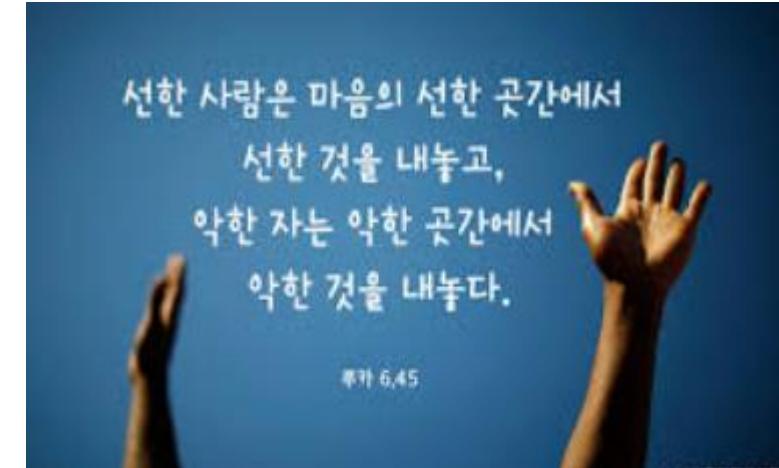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공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공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다.

루카 6:45



연중 제 8 주일

(2025. 3. 2.)

제 1 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27,4-7

화답송 시편 92(91), 2-3, 13-14, 15-16 (◎ 2 ↗ 참조)



후렴.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상상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5, 54-58

복음 환호송 필리 2, 15, 16 참조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 39-45